

한-유럽연합 통상장관, 자유무역협정 이행 점검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현안 논의

- 제11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과불화화합물 규제 등 다양한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 촉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 31.(화), 서울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수석부 집행위원장*과 한-유럽연합(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1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통상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유럽연합(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수석 부집행위원장 3명 등으로 구성, 돔브로브스키스는 '19년 수석 부집행위원장 임명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고려대에서 '양국 간 경제, 통상 협력 관계' 특강 등 양국 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일정 소화 예정

한-유럽연합(EU) 통상장관은 제11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국제(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 측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배터리법,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및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 및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한·유럽연합(EU) 간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라고 당부하였다.

한-유럽연합(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안 본부장은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계를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이번 무역위원회 개최 외에도 다양한 계기*에 양자, 다자 통상교섭 활동을 통해 유럽연합(EU) 및 유럽 국가들에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입법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유럽연합(EU)시장 진출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제1차 한-유럽연합(EU) 산업공급망 대화(12월 중), 양자 면담(유럽연합(EU) 통상총국 부총국장(11. 1.), 아일랜드 기업통상부 장관(11. 2.), 몰타 외교부 장관(11. 7.) 등), 다자회의(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11월 중) 등

담당 부서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상현 (044-203-5660)
		담당자	서기관	황승완 (044-203-5668)
<CBAM>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담당자	사무관	김관수 (044-203-4896)
<PFAS>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240)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4-203-4242)
<철강SG>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책임자	과 장	손호영 (044-203-5940)
		담당자	서기관	황유정 (044-203-5941)
<식품>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경희 (044-201-2071)
		담당자	사무관	김승래 (044-201-2080)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현경 (043-719-1551)
		담당자	연구관	고영호 (043-719-1553)



□ 무역위원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3.10.31(화) 15:00-17:30, 포시즌스 호텔(광화문)
- 참석자 : 총 20여 명
 - 우리측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기재부 통상조정과장 등 10여 명
 - EU측 : Dombrovskis EU 수석 부집행위원장, 주한EU대사, EU 통상총국 부총국장 등 10여 명

□ 주요 논의내용

- (삼계탕) 우리측은 지난 1996년에 EU측에 삼계탕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후 현재까지 수입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며, EU측에 남아 있는 세부절차에 대한 정보와 함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함
- (佛전기차보조금) 우리측은 보조금 개편안이 외국에서 생산, 수출하는 전기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탄소배출계수 산정근거 명확화, 해상운송계수의 수입산 전기차 차별 문제 시정, WTO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함
- (CBAM) 우리측은 CBAM의 시행으로 역외기업의 EU시장 접근성이 사실상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며, 후속 이행법안 제정시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해소 및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함
- (철강세이프가드) 우리측은 EU가 '19년부터 부과중인 철강세이프가드 조치가 우리 기업들의 對EU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동 조치가 '24.6월 이후 추가연장 없이 종료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함

- (EU배터리법) 우리측은 EU측에 향후 EU배터리법의 상세 이행법안 마련시 진행 상황을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수시로 안내하고 의견수렴 해줄 것을 당부함.
- (EU역외보조금) 또한 우리측은 최근 시행된 EU의 역외보조금 제도와 관련하여, EU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조속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업계 및 공공조달을 실시하는 EU회원국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안내를 당부하였음

□ 회담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3.10.31(화) 14:00-14:20, 포시즌스 호텔(광화문)
- 참석자 : 총 6명
 - 우리측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신통상전략관, 다자통상법무관
 - EU측 : Dombrovskis EU 수석 부집행위원장, 주한EU대사, EU 통상총국 부총국장

□ 주요 논의내용

- (PFAS) 우리측은 EU에서 현재 검토 중인 과불화화합물(PFAS)의 전면 사용제한 시, 대체물질과 기술개발이 어렵다는 산업계 현황,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를 요청함
- (GSSA) 우리측은 EU-미국간 추진중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진전사항 및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당부함
- (WTO) 양측은 현재 진행중인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논의에 대해서 진전상황을 평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WTO에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음